

약자 가사 오름서

수입산에 밀려 국내재배면적 감소 탓

국 산할재 가격이 전
반적으로 오를세를 보이
고 있다.
거실 벽면들이 지난 달
1만~천5백원보다 2
천5백원이 더 오른
1
이며 지도도 지난 달
다 1천원 가까이 올라
5천5백원까지 도매가
래되고 있다.
또 5년은 이상의 대
원 오른 도매시세로 근

당 4천2백원에 택사
가 2백원 혹은 5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전장, 길장, 매클로우,
현호색을 국산이 귀해
풀구현상까지 빛고 있는
풀구를. 이를 야자와 풀
귀화장을 수입과 가족
경쟁에서 밀려 재배면적
이 줄었거나 시세폭락의
로 농민들이 재배를 기
피함으로서 생산량이 대
폭 감소한 때문으로 분
석되고 있다.

◇ 시세변동

품 목	가 격	지난달비
거실맥문동	14,000	▲2,500
지 모	5,500	▲ 800
대 황 기	30,000	▲2,000
건 강	4,200	▲ 400
길 경	6,700	▲ 200
현 호 색	8,500	▲ 500

9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이사회는 특히 회장선거가 있을 3월 정기총회에 앞서 갖는 공식자리로서 차기회장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나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농민부는 농민부는
을 합해
약 농업 부문에 대한 자생
금지령을 78억 7천 5백
만원으로 확정했다.
생약부문 지원대상자
영수증을 보면서 생약재 배포
농가의 생산비 개별인 생약재 배포
부가가치를 높일수
생약전조장 및 조제
과 생약전화장 등
자금지원은 보조

97 제1차 이사회
26일 협회 회의실
한국전통의약학회
26일 오후 2시
의술에서 통상 제86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단속관 두고 '갈등'

한약재 원산지 표시



◇ 문제의 발단은 농검의 원산지표시 단속과 관련 한약 도매상들이 민원을 제기한데서부터이다.

를 높이고 있다.
지난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온고 있는 원산지표 시제는 수입산의 국산 둑값을 방지함으로서 고품질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약도매 상 한약방 등에서 농산물을 겸가 소의 원산지 표시제 단속과 관련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에 의한 약약품판매업자(한약 전문도매상, 한약방, 약국)가 취급 판매하는 한약재는 의약품이므로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각 시군에 통고했다.
이에 대해 농산물검사

부 흥인자 윤신자 표지여 —————— 본자부와 —————— 쿠를놓신를걸
단속권을 두고 보건 —————— 사소간에 행패한 의견대

의약품, 농첨단속 대상 아니다.
전문인력 보유 효과적 단속 가능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吳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容煥澤
鍾玉根
李張田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지면이나

국내 자원식물 정보전산화

의연 중부시혈장 식·약용등 5백99종

(장장·박광아)이 국군 약물사물이나 산채류 등 각종 자원식물 정보를 전산화하여 PC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종교·임대차·부동산·취급
재배·채취할 수 있는 각종 식용·약용
자원식물 5백99종에 대하여 개회·결
심·이식시기·이용법 등을 12개 항목에
걸쳐 관련정보를 전파하여 일반인을
에게 PC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정보는 2백여 종의 한방약재와 민간약재로 사전이나 그림을 결합하여 일관성이 좋게 해당 식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이 다.

**“요즘 농촌에서는 재배할만한
야초가 없다고 한답니다.”**

생약재는 우리 후손들의 후손 그 후손들에게 까지
무거증인 한 수준의 기원입니다.

둘러구어야 할 조중한 사안입니다.
단장의 책은 이의을 얹께

중정의 속은 이복을 위해
더 큰 재산을 포기한지겠습니까

함께사는 내익을 위해

수입엑스제 사용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